

【특 집】

## 기타무라 겐지로의 전후 ‘만주’\*

유 수 정\*\*

### 차례

1. 들어가며
2. 만주국의 유일한 전업 작가
3. 귀환담의 계보
4. 기타무라 겐지로의 전후 문필활동
5. ‘만주’라는 굴레
6. 결론을 대신한 결말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기타무라 겐지로의 전후 문필활동을 발굴하여 정리하고, 그가 ‘직시’한 ‘만주’ 또는 ‘만주국’은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일본낭만파 출신의 기타무라 겐지로는 1937년에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으로 이주하여 『만주낭만』을 창간한 만주국의 유일한 전업 작가였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이 있었고 1946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외지’에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귀환한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귀환담은 패전 직후인 1940년대 후반부터 체험자들의 서사를 통해 생산되었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설, 영화, 만화, 드라마 등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1948년 사세보를 거쳐 도쿄로 귀환한 기타무라 겐지로는 누구 못지않은 귀환의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그가 발표한 텍스트들에는 귀환에 관한 기억이 거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4724)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의 서술되지 않았다.

전후 기타무라 겐지로의 문필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단카(短歌) 가인으로서의 활동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전작품의 재화(再話) 집필, 수필이나 잡지 기사의 집필, 그리고 소설 창작이 그것이다. 생계를 위한 재화 집필과 몇몇의 잡지 기사나 수필을 제외하고는 귀환 후 10여년 간 기타무라의 문단 활동은 없었다. 긴 휴지기를 지나 그가 다시 문학계에 돌아오면서 내놓은 것은 전전(戰前)의 낭만파도 아니요, 취미로 즐기던 단카도 아닌, 바로 '만주국'에서 '활약하던 일본 문학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회고록 『북변모정기(北邊慕情記)』였다. 회고록 서문에서는 15년이라는 세월과 자신이 노년에 접어들고 있다는 자각이 10년의 침묵을 깨고 만주를 다시 소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타무라에게 있어서 만주는 쓰라린 제국의 기억으로서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화려한 청춘이기도 했던 것이다.

기타무라가 1966년에 발표한 전후의 유일한 단편소설 「늦은 벚꽃(遅櫻)」에서는 만주에서 귀환한 서양화가를 주인공으로 귀환 후의 가난한 생활과 청춘과 나이듦에 대한 애뜻한 슬픔, 전쟁기에서 전후로의 변화 등을 그려간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돈벌이를 위한 그림은 그리지 않으려 하던 주인공이 결국 생계를 위해 출판사의 정중한 부탁을 받아들이며 끝난다. 제국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욕망을 감추지 않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되는 '전후'라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이 소설이 끝나는 것이다.

만주국이 붕괴하고, 일본의 패전과 함께 죽어야 했던 기타무라의 문학은 그 재생을 위한 통과의례 『북변모정기』 이후로도 사실상 살아나지는 못 했다. 「늦은 벚꽃」은 변해가는 전후 일본을 살면서 예순을 맞은 작가가, 제국의 역사는 쓰라린 기억이기는 하지만 '비굴함도 없었고 '순수하게 문학을 꿈꾸었던 자신의 청춘을 위해 읊은 송가였다. 외지 체험자들이 모두 고난의 귀환, 피해자로서의 귀환의 기억으로 외지에서의 '풍요로운'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은폐하고 단절을 시도할 때, 기타무라 겐지로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 연속을 기록하고 또한 그와 함께 자신의 문학을 마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기타무라 겐지로, 만주문학, 전후, 귀환담의 부재, 북변모정기, 늦은 벚꽃

## 1. 들어가며

‘만주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만주’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유효했던 시기, 즉 19세기 말에서 현재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문학의 창작자뿐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든 다양한 정의와 이해가 존재해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중국의 5.4운동의 영향으로 촉발된 중국 근대문학의 동북작가그룹과 그 이후 구덩(古丁)을 비롯하여 ‘만주국’하에서 활동한 ‘만계’=중국인 작가들, 일본제국의 관동주와 만철연선(남만주철도 철도부속지) 진출을 계기로 ‘만주’로 이주하여 살던 일본의 문학 애호가들, 시인들과 ‘만주국’ 성립을 전후로 ‘만주’를 거쳐간 일본작가들, 일본 식민지 지배를 피해 만주로 건너간 조선의 작가들, 백계러시아인(White Russian) 작가 등 ‘만주’에서 활동한 문학 주체들의 민족적 다양성과 정체성의 복잡성은 거듭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특히 “만주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936년에서 1938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만주문학 개념화 논의<sup>1)</sup>는 ‘만주국’ 배후에 있던 관동군과 일본제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만주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일본인들, 다시 말해 식민종주국 주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만주문학’이 갖는 복잡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게다가 ‘만주국’이라는 시도가 일본제국의 패망과 함께 미완의 프로젝트로 끝남으로 인해 ‘만주문학’의 실체는 그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문학’은 창작되었고, 현재 우리들 앞에 텍스트로 남아있다.

‘만주국’이 ‘미완의 프로젝트’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뿐 아니라, 당시에 ‘만주국’과 ‘만주’를 살았던 ‘그들’도 결국에는 직시해야 했던 문제였다. 전쟁이 끝나고 ‘목숨을 건’ 귀환을 거쳐 전후 일본에 ‘돌아온’ 그들이 회상하는, 또는 재인식하는 ‘만주’와 ‘만주문학’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것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을까.

1) 유수정, 2011.4, 「만주국초기, 일본어문학계의 <만주문학론>」,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1집.

본 논문에서는 '만주문학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만주에서 '만주문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했던 일본인 문학자 중 하나인 기타무라 겐지로의 전후 문필활동을 발굴하여 정리하고, 그가 일본의 패전 이후에 '직시'한 '만주' 또는 '만주국'은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의 전후 텍스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만주국'의 유일한 전업 작가

기타무라 겐지로(北村謙次郎, 1904~1982)는 도쿄에서 태어나 유년기는 관동주 다렌(大連)에서 지냈다. 1923년 진학을 위해 도쿄로 돌아와 10여 년 동안 도쿄의 근대문화를 향유하며, 1931년 일본문단에 데뷔한다. 『작품(作品)』, 『파란꽃(靑い花)』, 『일본낭만파(日本浪漫派)』 등 여러 잡지에 단편소설과 수필을 기고하는 한편, 아카마쓰 겐센(赤松月船), 기야마 쇼헤이(木山捷平),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등 시인, 작가들과 교류를 하며 자신의 문학을 계속 모색해갔다. 1937년에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新京)에 이주하여 만영(滿映, 만주영화협회)에서 근무했지만, 이듬해 퇴직하고 문학활동에 전념한다. 당시 '만주국'에서 문학활동을 하는 일본인은 정부기관이나 만철, 만영 등 국책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만계' 중국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만주국'에서 문학활동 이외에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은 전업 작가는 기타무라 겐지로가 유일했다. 그가 만영을 그만둔 이유는 도만(渡滿) 직후 신경에 문예지가 없음을 알고, '만주국' 수도 신경에 걸맞은 잡지를 창간하기 위함이었다. 도만 이듬해인 1938년 10월에 『만주낭만(滿洲浪漫)』을 창간하고 1940년11월까지 제1집~제6집의 대표 '저작인'으로 잡지를 간행하였다.<sup>2)</sup>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섯 권의 '만주낭만총서<sup>3)</sup>를 발행하면서 기타무

2) 『만주낭만(滿洲浪漫)』 총6권 : 제1집 1938.10, 제2집 1939.3, 제3집 1939.7, 제4집 1939.12, 제5집 1940.1, 제6집 1940.1.

라 겐지로는 ‘만주문학계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기타무라가 『만주낭만』에서 표방한 것은 ‘대륙낭만(大陸ロマン)’과 ‘만주낭만(滿洲ロマン)’<sup>4)</sup>이었다. 이는 일본낭만파의 사상적 중심이었던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가 말하는 ‘웅대한 로맨티시즘’<sup>5)</sup> ‘대륙의 문학’<sup>6)</sup>을 이어받은 개념이면서, 나아가 ‘만주경험을 통해 ‘만주의 풍토’와의 ‘일체화’를 이상으로 하는 확장판이었다.’<sup>7)</sup>

잡지 『만주낭만』의 간행 이외에도 기타무라는 ‘만주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1938년에 「학(鶴)」, 「군맹(群盲)」, 1939년에는 「어떤 환경(或る環境)」 등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고, 1941년에는 1월21일부터 5월24일까지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 석간에 95회에 걸쳐 장편소설 「춘련(春聯)」을 연재했다. 1943년에는 「귀심(歸心)」, 「여창(旅窓)」, 「동북(東北)」, 「다듬이(砧)」, 「생의 마지막 거처(つひの栖)」를 묶어 단편소설집 『귀심(歸心)』을 간행한다. 이 중 1940년 8월에 일본 ‘내지의 잡지 『문예(文藝)』에 발표한 「생의 마지막 거처(つひの栖)」는 1940년 하반기 제12회 아쿠타가와상(芥川賞) 예선 후보작으로 오르기도 하여,<sup>8)</sup> 명실상부 만주 일본어문단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작품활동으로 보나, 만주 일본어문단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으로 보나, ‘만계’ 작가들과의 교류로 보나 기타무라 겐지로는 ‘만주문학을 대표할 만한 문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친 대동어문학자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3) 만주낭만총서(滿洲浪漫叢書) : 작품집 『僻土殘歌』, 1941, 北尾陽三『明暗』, 1942, 大内隆雄『或る時代』, 1942, 鈴木啓佐吉『愛情の緩急』(未詳), 鳥羽亮吉『流沙香綺談』, 1942.

4) 北村謙次郎, 1940.5, 「探求と觀照」, 『滿洲浪漫』 第5輯, 72쪽.

5) 保田與重郎, 1938.11, 「大陸と文學」, 『新潮』 第409号, 98쪽.

6) 위의 글, 99쪽.

7) 기타무라 겐지로의 ‘만주국’ 시기의 문학관에 관해서는 韓玲玲(2014), 「雜誌『滿洲浪漫』における北村謙次郎の文學理念」, 『總研文化科學研究』 第10号 참조.

“그에게 있어 문학이란 자기표현의 수단이었고, 자신의 인생 체험의 존재 증명이기도 했다. 그는 문학의 순수함을 강조하고 문학의 공리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중략) 그는 일본문화의 우월감을 전부 버리고, 피부로 만주의 풍토를 느낄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육체로부터 만주풍토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로써 타민족과 일체화할 것을 기대했다.”(99쪽)

8) 이때의 심사평은 심사위원 8명 중 우노 고지(宇野浩二) 1명만 남겼다. “잘 쓰기는 하였지만, 너무 간단하다”

芥川賞のすべてのようなもの

<http://homepage1.nifty.com/naokiaward/akutagawa/pkogun/pkogun12KK.htm>

태평양전쟁의 전세가 기울어가던 1945년 여름까지 기타무라는 개척단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오지로 출장을 나갈 정도로 다망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의 패배는 완전히 굳어졌다. 급기야 소련이 만주전선에 참전하고 그 일주일 후에, 기타무라는 자택이 있던 신경 교외의 관성자(寬城子)에서 천황의 패전 조칙(詔勅) 방송을 듣는다.

그 후 1947년에 사세보(佐世保)를 거쳐 도쿄에 귀환하기까지, 이른바 기타무라의 '히키야게(引揚げ: 귀환)'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패전 직후 만주국 각지에서 신경으로 모여들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 페이지 정도, 본격적으로 귀환이 시작되는 1946년 여름을 전후로 하여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문화재를 처리하는 과정을 정리한 내용이 3페이지 가량 그의 장편 회고록 『북변모정』에 삽입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기타무라 자신의 귀환담이라기보다는 주변 일본인들 개인의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타무라가 자신의 패전에서 귀환하기까지 과정 중의 일을 글로 남긴 것은 귀환 이후 처음으로 잡지에 기고한 글인 『동북 작가를 생각하며』(1948.8)가 유일하다. 내용은 창춘(長春=新京)을 떠나기 전 날 자신을 찾아와 환송회를 열어준 '만개' 작가들에 대한 추억담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본격적으로 귀환을 시작하기 전, 즉 아직 '만주의 생활공간에 남아 있을 때의 이야기'에 해당된다.

### 3. 귀환담의 계보

패전 당시 외지 재주 일본인은 총 약 6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군인이나 군속을 제외한 민간인은 약 330만 명으로 당시 일본 내지 인구가 약 7,000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의 일본인이 패전과 함께 패전국민이 되어 외지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일본으로 귀환해야 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sup>9)</sup> 지역별로는 만주가 약 110만 명, 조선이 약 75만 명, 타이완이 약 40만 명, 사할린 약 40만 명, 중국 본토가 약 40만 명 그리고 홍콩·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10만 명, 남양군도가 3만 명 정도였다.<sup>10)</sup> 패전 직후부터 1949년까지 이들 중 62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귀환하였다.<sup>11)</sup>

외지에 체류하던 일본인들 대부분의 귀환은 패전 직후인 1945년 8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만주와 북한, 사할린 등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은 강제 이송과 시베리아역류 등으로 순조롭지 않아 타지역에 비해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이 체험들은 후에 귀환체험담으로 반복적으로 기술되며 기억된다.

최준호는 나리타 류이치<sup>12)</sup>의 논의를 밝아 이러한 ‘귀환체험기(引揚体験記)’를 집필 시기별로 구별하고 있다.<sup>13)</sup> 패전직후인 1950년대를 여명기로, 1960년대를 휴지기로, 1970년대를 재연(再燃)기로, 그리고 그 이후의 1980년대는 1970년대의 흐름을 잇는 시기로 파악한다. 1950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아직 생생할 수밖에 없는 체험의 기억이 크게 작용한다. 모리 후미코(森文子)의 『탈출기(脱出記)』(1948)나 아카오 아키코(赤尾彰子)의 『돌로 쫓겨나듯이(石をもて追わるる如く)』(1949),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1949) 등과 같이 주로 고난의 귀환 과정을 경험한 여성들의 수기가 주를 이루었다. 1960년대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귀환담은 일본사회가 ‘이제 전후가 아니라고’ 선언하며 고도경제성장기로 돌입하면서 휴지기로 들어간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며 귀환담은 다시 활발히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혼다 야스하루(本田靖春)는 식민1세대가 과거를 돌아보는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점과 유년기에 패전과 귀환을 체험한 식민2세대가 성장하여 자신들의 개인사를 기술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는 점을 주

9) 崔俊鎬, 2012.5, 「日本人植民者の「引揚体験記」-「反復」と「継続」の流れ」, 『日語日文學』 제54집, 356쪽.

10) 若槻泰雄, 1991, 「表一 海外在住者數」, 『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 16~17쪽 참조.

11) 引揚者援護廳長官官房總務課記録係編集, 1950, 『引揚援護の記録』, 引用引揚援護廳, 1~2쪽.

12) 成田龍一, 2003, 「『引揚げ』に関する序章」, 『思想』 第11号.

13) 崔俊鎬, 앞의 논문, 359~360쪽 참조.

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sup>14)</sup> 더불어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중국잔류 일본인 문제가 불거지고 1974년 8월 15일 『아사히신문』에 혈육을 찾는 특집 기사가 실리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매스컴에 등장한다. 이어서 후생성의 공개조사와 국비 보조를 통한 중국잔류 일본인들의 일본방문 등이 1980년대에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일본인들이 잊어가고 있던 귀환의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패전과 귀환의 서사는 체험자들을 통해 생산되고, 이후 소설, 영화, 만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로 재생산·해석되면서 일본의 전쟁과 패전, 전후의 기억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귀환담/문학은 '피해자로서의 입장만을 강조한 '자기중심적인 내셔널리즘'<sup>15)</sup>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서사의 회피와 자기기만'을 통한 '기억의 은폐'<sup>16)</sup>로 해석되기도 하며, '제국주의시대와 그 종언에 대한 트라우마'<sup>17)</sup>로 분석되기도 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반전평화주의'의 일환으로 대중적 층위에서 자발적으로 '귀환체험기'를 발행하게 되는 자극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sup>18)</sup>

기타무라 겐지로 역시 '만주국에서 패전을 맞고, 그 자신이 고난의 귀환 체험을 한 당사자이다. 그뿐 아니라 기타무라가 전후에 자신의 '만주체험'을 기술하기 시작하는 시점 역시 일련의 귀환담 출판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무라는 자신의 귀환체험을 본격적으로 쓰지 않았다. 단지 '만주체험'의 일부로 패전 직후 만주의 정황을 일부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누구 못지않은 귀환의 기억을 갖고 있는 기타무라이지만 그의 전후 텍스트는 '귀환'이 아닌 '외지'로서의 '만주국'에 대한 체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14) 本田靖春, 1979, 「日本の“カミュ”たち—「引揚げ体験」から作家たちは生まれた」, 『諸君』 第11巻 第7号.

15) 崔俊鎬, 앞의 논문.

16) 黄益九, 2014.2, 「「引揚げ」言説と〈記憶〉の版図—岩森延男「わかれ道」が發信する美談と「故郷」, 『日語日文學』 제61집.

17) 朴裕河, 2009.11, 「引揚げ文學論序説—戦後文學のわすれもの」, 『日本學報』 第81号.

18) 박이진, 2013.12, 「귀환체험담의 '비극' 재현 담론 속 '반전평화주의'—1970년대 전환기의 귀환체험담 담론비평」, 『일본사상』 제25호.

## 4. 기타무라 겐지로의 전후 문필활동

기타무라 겐지로는 전후에 30여편의 텍스트를 남겼다. 그의 문필활동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단카 가인으로서의 활동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전작품의 재화(再話) 집필, 수필이나 잡지 기사의 집필, 그리고 소설 창작이 그것이다.(표 1 참조) 그 외에는 만주국 시대의 단편작품이 앤솔러지에 재수록되기도 했다.

[표 1] 기타무라 겐지로 전후 텍스트

	제목	잡지/시리즈	출판사	출판년	기타
1	동북 작가를 생각하며 東北の作家を懐ふ	日本未來派 (9)	日本未來派社	1948.3	수필
2	도쿠다 슈세이의 집 - 문단유적순례 1 徳田秋聲の家 - 文壇遺跡 巡礼 - 1	文芸往來 3(8)	文芸往來社	1949.9	頁欠
3	돈키호테 ドン・キホーテ	世界名作文庫	偕成社	1951	再話
4	아라비안 나이트 アラビアンナイト	世界名作文庫	偕成社	1951	再話
5	다케토리 이야기 · 오치쓰보 이야기 竹取物語 · 落窪物語 : 日本古典	世界名作文庫	偕成社	1952	再話

	제목	잡지/시리즈	출판사	출판년	기타
10	호겐 헤이지 이야기 保元平治物語	世界名作文庫	偕成社	1955	再話
11	핫켄텐 이야기 八犬伝ものがたり	兒童名作全集	偕成社	1955	再話
12	걸작 그림이야기 「사색 물고기」 名作繪物語「四色の魚」	中學時代二年生 1(1)	旺文社	1956.11	未見
13	도카이도 여행기 日本古典物語 東海道中膝栗毛	中學時代三年生 8(9)	旺文社	1956.11	未見
14	걸작 그림이야기 「사색 물고기」(2) 名作繪物語 「四色の魚」(二)	中學時代二年生 1(2)	旺文社	1956.12	未見
15	북변모정기 北邊慕情記		大學書房	1960	수필
16	다자이의 싸움 太宰君の喧嘩	あまカラ (117)	甘辛社	1961.5	수필
17	시마키 아카히코 - 유적을 찾아 島木赤彦 - 遺跡をたず ねて	短歌 8(8)	角川	1961.8	수필
18	사이토 모키치 - 유적을 찾아 齋藤茂吉 - 遺跡をたず ねて	短歌 9(6)	角川	1962.6	수필

제목		잡지/시리즈	출판사	출판년	기타
24	지진과 문인-9월1일 관동대지진 地震と文人-九月一日の 關東大震災	東京タイムズ		1967.8.22	未見
25	가와바타씨와 이즈 川端さんと伊豆	温泉 37(9)(415)	日本温泉 協會	1969.9	수필
26	만주사변 발발 40주년 비화-오스기 암살자 아마카스 대위의 비밀 滿州事変勃發四十年目の 秘話-大杉殺し甘粕大尉 の秘密	新評 17(12)	新評社	1970.10	기사
27	나가사키의 모키치 長崎の茂吉- あららぎ物語		皆美社	1972	장편소설
28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 日本人と中國人の仲	歴史研究 (143)	新人物往 來	1972.12	기사
29	가와바타씨의 거처, 편지 등 川端さんの定宿, 手紙など	文芸 12(4)	河出書房	1973.4	수필
30	남해의 들국화 南海の野菊	ちくま (106)	筑摩書房	1978.2	수필
31	낭만의 시절 浪漫的頃	索通信 15		2013.5~ (1960 ~70년대)	장편소설 未見

## (1) 단카(短歌)

가인 기타무라 겐지로는 단카 동인지 『아라라기(アララギ)』(1908~1997)에서 동인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필명과 그의 단카작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귀환 이후부터 문필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1960년까지는 주로 단카 창작이 기타무라의 문학활동의 전부였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동료 문학자들이 남긴 글이나, 기타무라의 수필, 소설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설가이자 일본에 루쉰(魯迅)을 번역소개한 오다 다케오(小田巖夫)는 기타무라 겐지로의 『북변모정기』 추천사에 다음과 같이 남긴다.

전후의 소연한 도쿄는 누구에게든 그랬지만, 그에게는 특히 더 익숙해지기 힘들었으리라. 그뿐 아니라 문예저널리즘의 쫓기듯이 빠르게 변하는 모습에, 본격적으로 문학에 뛰어들려는 열정도 쉬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남은 여가시간에 그는 오로지 정원을 열심히 가꾸거나, 서른 한 자속에 감회를 담아내거나 했던 듯이 보였는데, 그 와중에 어느새 이렇게 「북변모정기」를 쓰고 있었다.<sup>19)</sup>(이하, 번역과 밑줄은 인용자에 의함)

밑줄 친 부분의 ‘서른 한 자’는 5·7·5·7·7의 형식을 갖는 단카를 일컫는다. 일본 패전과 만주국 붕괴 이후, 고단한 귀환길을 거쳐 도쿄에 돌아온 기타무라가 ‘본격적으로 문학에 뛰어들려는 열정’이 쉬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필사적이었을 당시에 기타무라가 유일하게 지속했던 문학활동은 단카 창작이었다는 동료 문학자 오다의 증언이다. 사실 기타무라의 단카와 하이쿠(俳句), 하이카이(俳諧)에 대한 관심과 조예는 전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만주국 시기에 발표한 단편소설 「생의 마지막 거처(つひの栖)」는 에도(江戸)를 대표하는 하이카이 가인인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의 하이쿠 “是がまあつひの栖か雪五尺(이것이 바로 마지막 거처인가 오 척 쌓인 눈)”에서 따온 제목임을 하이쿠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기타무라가 읊은 단카를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단카, 그중에서도 근대단카에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전후 수필이나 소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60년에 장편수필 『북변모정기』로 문학활동을 재개한 이후에 발표한 2편의 장편소설은 모두 일본의 근대단카를 개척한 대표적인 단카 동인지 『아라라기』의 동인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1966년에 발

19) 小田巖夫, 1960, 「偶言」, 『北辺慕情記』, 大學書房, 6쪽.

표한 『아라라기 이야기 - 시가에 살아간 사람들(あららぎ物語 - 詩歌に生きた人びと, 이하 ‘아라라기 이야기’로 표기)』은 『아라라기』창간을 전후로 하여 가인들의 생활과 관계를 재구성한 소설이고, 1972년에 발표한 『나가사키의 모키치 - 아라라기 이야기(長崎の茂吉 - あららぎ物語, 이하 ‘나가사키의 모키치’로 표기)』는 『아라라기』의 대표적 가인인 사이토 모키치(齋藤茂吉)를 중심으로 하여 전편 『아라라기 이야기』의 후속작적 성격이 강하다.<sup>20)</sup> 두 장편소설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기타무라가 단카 자체만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단카 문단에 적지 않은 관심과 지식이 있었음을 지적해 두는 것으로 한다. 특히 사이토 모키치에게는 각별한 애정이 있었는데 『아라라기 이야기』 작가후기에 “사이토 모키치의 자취를 소설로 남기고자 생각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이었다. 내 고향은 야마가타현 요네자와(山形縣米澤)로 모키치의 생가가 있는 가미노야마(上の山)는 요네자와에서 불과 서너 역 떨어진 곳이었다. 모키치를 그리고자 한 마음 속에는 동향 문인에 대한 일종의 향수와 같은 감정이 있었다.”<sup>21)</sup>고 사이토 모키치에 대한 각별함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모키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그 주변의 가인들에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두 편의 장편소설을 쓰기에 이르렀다는 집필동기를 밝히고 있다. 장편 집필에 앞서 기타무라는 사이토 모키치와 함께 아라라기파의 양대 산맥이었던 시마키 아카히코(島木赤彦)의 생가, 나가노현 스와군(長野縣諏訪郡)을 사전 답사하고, 이어서 사이토 모키치의 생가를 답사한 후, 1961년과 1962년에 각각의 기행답사문을 『단카(短歌)』 잡지에 기고했다.

귀환 직후 ‘만주국의 중국인 작가들을 회고하는 짧은 글과 소설가 도쿠다 슈세이(徳田秋聲)에 관한 글을 쓴 후 10년 동안 이렇다 할 문학 활동이 없었던 기타무라가 1960년에 야심차게 문단에 들고 돌아온 것은 ‘본업’인 소

20) 작가 자신은 『나가사키의 모키치』가 『아라라기 이야기』의 후속편이나 제2편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으나 ‘전편에서 아라라기 형성을 이야기했다면, 본편(『나가사키의 모키치』: 인용자 주)에서는 집단의 동요와 이동의 조짐을 기술했다고 할 수 있다.’(『覺之書』『長崎の茂吉 - あららぎ物語』, 253쪽)고 하면서 두 소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21) 北村謙次郎, 1966, 『あとがき』, 『あららぎ物語 - 詩歌に生きた人びと』, 冬樹社, 285쪽.

설이 아니라 만주의 경험을 회고하여 정리한 장편수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말 그대로 ‘발로 뛰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라라기와 동인들의 자취를 좇았고, 5~6년의 취재와 정보수집을 거쳐 그들의 이야기를 펴냈다. 마치 근대단카와 그것을 확립시켜간 사람들을 그려내기 위해 문학활동을 재기한 것처럼 말이다.

## (2) 재화(再話)

기타무라는 귀환 이후 10여 년 동안 문학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글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표로 정리한 그의 전후 문필활동을 보면 그 기간 동안 기타무라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전작품’을 정리하여 다시 쓰는 재화(再話)를 9편 남긴 것을 알 수 있다. 가이세이샤(偕成社)에서 펴낸 세계명작문고 시리즈 전 100권 중 ‘돈키호테’, ‘아라비안 나이트’와 일본의 고전 ‘헤이케 이야기’, ‘요시쓰네기’ 등이 기타무라가 재화한 작품이다. 원본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250페이지의 양에 맞추어 쓰였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3페이지에 걸친 간단한 작가, 작품설명과 삽화(插畵)가 들어가 있다.



[그림 1] 가이세이샤(偕成社) 소년소녀 세계명작 시리즈 16권  
『다이코기(太閤記)』(초판 1955년)

기타무라는 1951년부터 1955년에 걸쳐 이와 같은 재화 작업을 하였고, 이어서 1956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잡지에 아라비안 나이트의

삽화(插話)나 일본 고전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화작업은 기타무라에게 있어서는 문학활동이었다기보다는 귀환 이후 궁핍한 가계를 꾸리기 위한 생계 수단이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에 발표한 전후 유일한 그의 단편소설 「늦은 벚꽃(遲櫻)」에는 다케지(竹二)라는 화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12월에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출판사로부터 역시나 들어본 적도 없는 명의로 편지가 왔다.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뜯어서 읽었다. 다케지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일이었다. 편지는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책에 삽화를 의뢰한다는 내용이었다. 본업인 유화 외에도 외지 생활 중에는 신문소설의 삽화나 잡지 장정그림을 그려 본 경험이 있다. 아이 들용 책의 삽화라니, 조금 상상이 가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도 그쪽의 경험도 없는 다케지의 무엇을 보고 갑자기 이런 주문이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중략)

편집자에게서 온 답장을 손에 든 채로, 다케지는 목소리 높여 아내 리에(利惠)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살았소.”

그러나 아내는 무정한 빗쟁이 할머니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냉정하고 무감동했다. 남편이 큰돈을 버는 덕에 풍요로운 정월을 맞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sup>22)</sup>

주인공 다케지는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현재, 예순을 맞는 화가로, ‘외지’에서 귀환한 이후 궁핍한 생활 속에서 어느날 갑자기 출판사로부터 일거리가 찾아왔던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다케지의 직업과 기타무라 겐지로의 직업은 다르지만, 소설 곳곳에는 기타무라가 경험했던 체험들이 시간관계 상의 정합성을 갖춘 채 그려지고 있다. 「늦은 벚꽃」이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 자신을 모델로 하여 쓰인 소설임은 말할 것도 없다. ‘들

22) 北村謙次郎, 1966.8, 「遲櫻」, 『政界往來』 第32卷 第8号, 162쪽.

어본 적도 없는 어떤 출판사로부터 온 편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살림'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정월'을 맞이할 '큰돈'을 벌게 해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소설을 끝낸다. 다케지에게, 그리고 기타무라에게 출판사가 의뢰해 온 일감은 그만큼 절실했던 생계 수단이었던 것이다.

### (3) 수필, 기사

1948년 일본으로 귀환하여 도쿄에서 생활이 안정되기까지 기타무라는 귀환 직후 잡지에 투고한 2편의 수필 이외에는 문단활동이 없었다. 오로지 생계를 위한 매문위활(賣文爲活)뿐이었다. 10여 년의 휴지기를 지나 그가 다시 문학계에 돌아오면서 내놓은 것은 전전(戰前)의 낭만파도 아니요, 취미로 즐기던 단카도 아니었다. 바로 '만주국에서 활약하던 일본 문학자들의 이야기'였다. 소설이 아닌 수필 내지는 수기의 형태로 자신의 체험과 자료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북변모정기(北邊慕情記)』라는 감상적인 제목을 붙여 발표하였다. 만주의 문화단체, 신문, 잡지, 작가·화가 등 문화인들, 문화 관련 정부기관과 관계자, 일본인이 모여살던 지역, '만계' 문학자들과 잡지, 백계 러시아인들, 신경(新京)의 풍경 등 기타무라가 직접 경험했거나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만주를 총망라하여 총 57장 구성으로 펴냈다. 기타무라 자신이 만주에 건너간 1937년 이전부터 생긴 단체나 잡지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채웠고, 본인이 겪은 일들은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장편수필 『북변모정기』 외에는 앞서 언급한 일본 패전 직후에 만주에 잔류하며 '만계' 작가들과 나눈 마지막 친교를 회고한 글(「東北の作家を懷ふ」, 1948.3)과 만주 도항선에서의 에피소드를 쓴 수필(「荒天のおにぎり」, 1965.2), 만주 생활을 통해 알게 됐을 아마카스(甘粕正彦)에 대한 비록(秘録) 기사(「滿州事変勃發四十年目の秘話-大杉毅し甘粕大尉の秘密」, 1970.10), 그리고 관동주 다렌의 체신관리국(遞信管理局)에서 일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재로 등장시킨 '특별연구' 기사(「日本人と中國人の仲 - 親日の干沖漢と善隣の宮島大八」, 1972.12)가 기타무라의 만

주체험이 반영된 글이다. 다시 말하면 전후에 기타무라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만주체험을 소재로 남긴 글은 『북변모정기』뿐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책을 펴면 세 편의 추천사와 저자의 서문에 이어, 무려 7페이지에 이르는 세세한 목차가 보인다.

- 제1장 문화회(文話會) - 신경·다렌의 문화회원 - 가을 정례회 - 만영(滿映) 창립 즈음
- 제2장 신경의 거쳐 - 「대신경일보」 - 이마이 이치로(今井一郎) - 신문소설
- 제3장 난징(南京)의 후양사(黃灑) - 오카다 마스요시(岡田益吉) - 「만주일 일신문」, 현상소설 - 기타오 요조(北尾陽三) - 당시의 원고료
- 제4장 사카에 빌딩 생활 - 닛케백화점 아가씨들 - 분쇼토(文祥堂)와 기사키 류(木崎龍)

목차의 일부만 보더라도 『북변모정기』가 ‘모정’이라는 감상적인 제목과는 달리 감상에 젖은 에피소드보다는 자료 정리적인 성격이 강한 글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체의 멤버 이름이 나열되기도 하고, 잡지명이나 잡지에 실린 작품명이 나열되기도 한다. 인물에 관한 글에서는 전반적인 활동이나 당시의 평가와 더불어 그 대상과 있었던 에피소드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만주국의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인지, 회고록인지, 수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글로 기타무라는 건조하리만치 담담하게 기억 속의 ‘만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변모정기’라는 제목을 붙인 데에 대한 이유는 저자의 서문에서 엿볼 수 있다.

나날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 8년간 이 나라가 걸어온 발걸음이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선배 지우(知友)들이 경영한 흔적이었다. 쓰라린 기억 속에서도 달콤한 모정(慕情)이 아른거리는 찰나를 나는 더 할 나위 없이 사랑했다.<sup>23)</sup>

23) 北村謙次郎, 1960, 「序に代えて」, 『北辺慕情記』, 大學書房, 15쪽.

6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서문에는 신경에서 패전을 맞는 1945년 8월을 전후로 한 체험들이 서술돼 있다. 특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과의 대화에서 담담하게 지난날의 힘든 기억을 끄집어내고, 이 모든 기억과 일본제국의 '과오'인 '만주국' '과거 8년간의 '쓰라린 기억'을 포함하여 '북변(北邊)'을, '만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낸다.

그리고 다시 1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엄청난 폭풍의 날들에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아는 많은 지우(知友)가 삭북(朔北)의 풍토와 인생에 깊숙하게 익숙해져갔다는 사실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sup>24)</sup>

이렇게 서문을 끝마치면서 15년이라는 세월과 자신이 노년에 접어들고 있다는 자각이 10년의 침묵을 깨고 만주를 다시 소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타무라에게 있어서 만주는 쓰라린 제국의 기억으로서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왕년에 잘 나가던' 청춘이기도 했던 것이다.

『북변모정기』와 만주체험을 바탕으로 한 수필과 기사 이외의 다른 글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기타무라가 관심을 갖고 있던 단카 가인들에 관한 글들과 기타무라와 친분이 있었던 다자이 오사무,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과 같은 문단인에 대한 회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글들을 『북변모정기』와 마찬가지로 감상적인 내용보다는 담담하게 에피소드를 말하거나 정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낭만파적 텍스트'이기보다는 저널리즘에 가까운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4) 창작

전후 기타무라 겐지로는 2편의 장편소설과 1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

24) 위와 같음.

고, 또 다른 한 편의 장편소설은 집필 후 미발표로 남겼다. 그 중 2편의 장편 『아라라기 이야기-시가에 살아간 사람들』(1966)과 『나가사키의 모키치-아라라기 이야기』(1972)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근대단가를 확립한 아라라기파(アララギ派) 동인들의 이야기를 사실과 픽션을 섞어 소설로 엮은 것이다. 소설 집필에 앞서서는 몇 번의 취재여행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잡지 『단가(短歌)』에 발표하기도 했다. 기타무라가 이전부터 단카나 하이쿠에 조예가 깊었던 점과 아라라기파의 대표 가인인 사이토 모키치(齋藤茂吉)와 고향이 같아 친밀감을 느꼈다는 점 등 두 편의 ‘아라라기 소설’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이미 앞서 지적하였다. 전편인 『아라라기 이야기』는 지카시(千櫻)<sup>25</sup>를 주인공으로 그의 스승격인 사치오(左千夫)<sup>26</sup>와 동료 가인 아카히코(赤彦)<sup>27</sup>, 모키치<sup>28</sup>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인지 『아라라기』를 만들어가고 가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내용이다. 이어서 6년 후에 발표된 『나가사키의 모키치』는 사이토 모키치를 주인공으로 하여 전편 『아라라기 이야기』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는 후속작적인 성격을 띤다.

흥미로운 것은 『아라라기 이야기』 표지 띠지에 있는 추천사이다. “메이지 백년의 전통 시미(詩美)에 보내는 찬가”, “새로운 시가에 인생을 건 사치오, 지카시, 아카히코, 모키치, 보쿠스이(牧水)의 청춘”이라는 짧은 선전문구와 함께, 전면은 타이완에서 태어나 저널리스트를 거쳐 문예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던 오자키 호쓰키(尾崎秀樹)의 추천사가, 후면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신감각파 작가이자 2년 후에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는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추천사가 실려 있다.

25) 본명 고이즈미 이쿠타로(古泉幾太郎, 1886.9.26-1927.8.11). 병약하고 가난한 중에도 창작활동을 계속했던 가인으로 알려졌다.

26) 본명 이토 고지로(伊藤幸次郎, 1864.9.18-1913.7.30).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에게 사사 받은 가인이자 소설가.

27) 시마키 아카히코(島木赤彦, 1876.12.16-1926.3.27). 본명 구보타 도시히코(久保田俊彦).

28) 사이토 모키치(齋藤茂吉, 1882.5.14-1953.2.25). 가인이자 정신과의사였고, 지카시와 함께 사치오의 문하에 들어가 아라라기파의 중심적인 가인이 되었다.

「아라라기」를 사랑하고 「아라라기」와 함께 살았던 사치오, 지카시, 아카히코, 모키킨을 비롯하여 문단, 가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수많은 작가들을 소설화. 이것은 메이지·다이쇼를 흐르는 일본 서정을 향한 한결같은 찬미이다.

- 오자키 호쓰키

저자는 일찍이 「춘련(春聯)」을 쓰고 만주 낭만개화에 일생의 꿈을 바쳤다. 1945년 종전과 함께 펜을 놓고 글쓰지 않는 작가가 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문예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20년의 침묵은 심해의 중압을 작가에게 가하는 것이리라.

중압을 등에 지고 기타무라씨가 낳은 이 신작은, 어딘가 숨죽인 문체와 전통미가 연결된 특이한 기법으로 보인다.

- 가와바타 야스나리

사실 오자키 호쓰키도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단카나 가단(歌壇)과는 그다지 관계가 있는 인물들은 아니다. 심지어 오자키는 당시 『근대문학의 상흔』(1863)에 이어 「만주국의 문학상(文學相)들」(1971)을 준비하고 있던 연구자이다. 덕분에 추천사는 기교적인 수사보다는 평이한 사실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 오자키와 기타무라의 관계는 어떤 지면상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오자키가 '만주국의 문학을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기타무라, 아마다 세이자부로, 아오키 미노루(青木實) 등 만주 귀환 작가들과 다수 접촉하면서 친분을 쌓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가와바타 야스나리와의 친교는 보다 더 오래됐다. 1941년 4월에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신경(新京)을 방문하였고, 만주문화회(滿洲文話會)와 정부 홍보처의 공동주최로 환영회가 열렸다. 그 이후 가와바타는 『만주국 민족 창작작품집(滿洲各國民族創作作品集)』을 2권 펴내면서, 기타무라의 작품도 일본·내지에 소개한다. 가와바타와 기타무라의 친교는 이 즈음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보이고, 기타무라의 문학적인 역량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아라라기 이야기』의 짧은 추천

사에도 기타무라의 만주에서의 행적과 공백기의 고뇌, 그리고 문학에 대한 평가를 모두 응축시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추천사들의 흥미로운 점은 내용이 아니다. 바로 단카와는 상관 없는, ‘만주로 뗏어진 인연들이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기타무라는 전후 문학활동을 재기하면서 내놓은 장편회고 수필 『북변모정기』 외에는 적극적으로 ‘만주’를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만주와는 단절된, ‘만주’ 이전의 고향과 연결고리를 갖는 단카에 집착을 했다. 그렇지만 ‘단카에 대한 집착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의 두 장편소설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가와바타는 단카 이야기를 눈앞에 두고, ‘만주 낭만 개화’를 환기시킨다. 기타무라가 단절시킨 만주는 결코 기타무라에게서 떨어져나가지 않았다.

## 5. ‘만주’라는 굴레

『아라라기 이야기』(1966)와 『나가사키의 모치키』(1972) 사이에 기타무라는 전후 유일한 단편소설인 「늦은 벚꽃(遅櫻)」<sup>29)</sup>(1966.8)을 발표한다. 1941년에 『춘련』을 쓰기 전까지 소설은 단편만 써왔던 기타무라다. 『춘련』은 ‘대륙적인 문학이라는 기치 아래 장편소설을 집필하는 것이 유행이자 의무와 같았던 시절에 집필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귀환한 후에 발표한 장편소설 두 편은 완전한 창작이라기보다는 사실을 극화한 일종의 전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상 3편의 장편소설을 쓰기는 하였지만 작가 기타무라의 ‘주특기’는 어디까지나 단편소설이었다.

「늦은 벚꽃」은 패전 이후 20년이 흐른, 바로 이 소설의 집필시점을 현재로 시작한다.

29) 北村謙次郎, 1966.8, 「遅櫻」, 『政治往來』第32卷 第8号.

이하, 인용문은 본 텍스트에서 발췌하였으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 수만 표기한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새 20년이 흘렀다. 올여름에는 벌써 21년을 맞는 셈이다. 막막하게 꿈에서 깨지 않은 듯한 20년에서 벌써 새로운 20몇 년을 향해 둔해진 다리를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은 남에게 말 못 할 감회가 함께한다. (152쪽)

만주에서 귀환한 서양화가 고무로 다케지(小室竹二)는 패전 후 20년이 지나 이제 예순에 접어들었다. 20년의 시간 동안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케지 개인에게는 '후회와 상심과, 빈곤과 불명예와 그리고 마음의 불안만이 남았다.'(153쪽) 생계를 위해 '오뎅' 포장마차라도 해 볼까 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아동용 책에 삽화를 그리는 일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귀환 직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본업인 유화에 대해서만은 타협하지 않았던 다케지였다. 그러나 친척집과 귀환 임시숙소를 거쳐 도쿄 교외 판잣집에 정착할 때까지 살림은 나아질 것이 없었다. 세상은 바뀌고 '갖고 싶어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때까지는', '사치는 적(敵)이다'라는 전시표어와는 다르게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세상이 되었다. 옛 동료들 중에 성공한 이들도 몇몇 생기지만 다케지의 그림은 낮은 도쿄에서 팔릴 리가 없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며, 빚쟁이의 독촉을 받기도 하는 막막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날 우연히 맡겨진 아동용 서적에 삽화를 그리는 일을 맡기로 하면서 소설은 끝난다.

기타무라의 경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인공과 작가 기타무라를 겹쳐서 이 소설을 읽게 될 것이다. 주인공의 직업은 다르지만, '외자'체험과 패전 후 겪게 되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감각과 곤란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본업을 잠시 접어야 했던 사정까지. 주인공 다케지는 기타무라의 분신인 셈이다.

### (1) 가난한 일가

「늦은 벚꽃」의 주인공 다케지가 앓고 있는 갈등의 요소는 크게 2가지이

다. 하나는 가난, 하나는 나이들이다.

가족의 수난은 이 날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전쟁이 끝난 그날 즈음부터 목숨을 건 위험까지도 연속해서 계속 일어났다. 그리고 이날 부터 새로운 고난의 가시밭이 한층 더 거칠어진 채 보이기 시작했다.(158쪽)

전쟁의 종언과 함께 ‘외지’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다케지 일가는 패전 이 후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 가난에 고통 받았다. 귀환 직후에는 도쿄의 친척 집에 머무르지만 이내 갈등으로 귀환 속사로 이사하고, 얼마 후 교외 판자 촌으로 이사하게 된 날의 암담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인용에 나타나 있다.

이사한지 얼마 안 된 그해, 1949년은 어려운 집안살림으로 숨이 끊길듯 말듯하면서 연말을 향해갔다. 다케지는 아직 아동서적이나 통속잡지 삽화까지 그럴 마음은 없이 오랜 습관대로 오로지 유희에만 집착했다. 때문에 낮선 도쿄 천지에서 그림이 팔릴 리가 없었다.(160쪽)

위 인용에는 다케지의 성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가난하고 살림이 어려워도, 상업적인 그림은 거부하고 ‘오랜 습관대로 오로지 유희에만 집착하는 고집스러운 자존심의 소유자이다. ‘운 좋게 기어 올라갈 사람은 기어 올라가 최신 유행의 양복을 입고 변화가를 어슬렁거리’는(160쪽) 옛 동료들과 마주치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다케지 일가의 가난은 귀환을 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그가 화가이기 때문만도 아니다. 도쿄에 인맥이 있다면 자신이 그린 유희를 팔아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동서적이나 통속잡지 삽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지는 가난하다. 다시 말해 다케지의 갈등의 원인은 가난 자체라기보다는 가난하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못 하는 그의 자존심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세월과 나이들이

다케지의 두 번째 갈등은 나이듦으로 인한 것이다. 소설은 처음부터 '전쟁이 끝나고 어느새 20년이 흘렀다고 세월의 흐름으로 시작하고 아이가 어른으로, 어른이 노인으로 되는 섭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어서 다케지는 자신의 늙음과 죽음을 생각한다.

모키치(茂吉)는 향년 72세에 세상을 떠났다. 다케지가 지금 예순이니 모키치까지 불과 12년의 여생이 남은 셈이다. 다케지의 경우 전쟁이 남긴 손톱자국이 지워지려면 한참인 것 같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깊게 살에 파고들 뿐이다.(154쪽)

기타무라 겐지로와 마찬가지로 다케지는 모키치에 대한 친밀감이 컸다. 패전에 대한 기억을 모키치의 단카로 대신하고 있을 정도이다.<sup>30)</sup> 문학과 인생의 롤모델과도 같은 모키치가 살았던 72년이라는 시간을, 다케지는 자기 자신에게도 대입해 보고 나이듦과 12년 남은 여생을 실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케지에게 있어서 나이듦이 단순히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늦은 벚꽃' 즉 '오소자쿠라(遅櫻)는 일찍이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sup>31)</sup> 요사 부손(与謝蕪村), 마쓰오 바쇼(松尾芭蕉)의 문하생<sup>32)</sup> 등 일본을 대표하는 하이쿠 가인[俳人]들이 즐겨 사용한 하이쿠 계절어[季語]이자 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오소자쿠라'에 대해서는 소설 속 나레이터가 요사 부손의 하이쿠를 들어서 직접 해석하고 있다.

가는 봄날에 머뭇머뭇 거리는 때늦은 벚꽃<sup>33)</sup>(154쪽)

30) 모가미강에 새하얀 물보라가 일어나도록 나부낀 어제 저녁 일이런가 하노라  
最上川逆白波のたつまでにふぶくゆふべとなりけるかも(齋藤茂吉)

31) 소란스러운 세상 물리치고서 때늦은 벚꽃 (騒がしき世をおし祓つて遅櫻)

32) 다케쿠마의 소나무를 보여주오 때늦은 벚꽃 (武隈の松見せ申せ遅櫻：擧白)

33) 行く春や逡巡として遅櫻 (与謝蕪村)

산과 들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가고 봄날은 가고 있다. 그런 봄이 가버리는 것을 아쉬워하기라도 하는 듯이 늦은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다는 내용이다. 이 하이쿠에 나오는 ‘때늦은 벚꽃(오소자쿠라)’은 바로 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다. 그 ‘봄’이 무엇인지가 해석의 관건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서술하고 있는 나이듦과 관련시킨다면 ‘봄’은 말할 것도 없이 ‘청춘’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예상이 가능한 비유라면 굳이 나레이터가 직접 설명을 할까? 독자의 단순한 해석을 나무라기라도 하듯이 바로 뒤이어 추가 설명이 이어진다.

‘봄’은 반드시 청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시각각 모든 것들이 떠나고 쉽없이 변한다는 데에 대한 석별(惜別)의 마음이라.(154-155쪽)

‘봄’은 청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시시각각 모든 것들이 떠나고 쉽없이 변하는 데에 대한 석별의 마음’, 다시 말해 봄이 가버리고 변하는 것, 변하는 세상, 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뜻함이라고 설명한다.

늦봄에 피는 때늦은 벚꽃에 깃든 잔광(殘光). 이런 것에 마음이 끌리는 심정은 선천적인 성정(性情)으로 인한 요인이 크지만, 세속에 반발하는 마음의 소산이기도 했음이 분명하다.(155쪽)

타고난 감수성이 떠나는 것, 변하는 것을 애뜻하게 느끼는 서정성과 함께 ‘세속에 반발하는 마음’이 ‘때늦은 벚꽃’에 응축되어 애뜻한 슬픔으로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초로에 접어든 가난한 화가 다케지는 봄이 가고, 청춘이 떠나고, 세상이 변하는 것에 애뜻함을 느끼고, 심지어 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케지가 반발하고 있는 ‘세속’의 변화는 무엇인가.

### (3) 전쟁에서 전후로

갖고 싶어하지 않겠습니다 이길 때까지는<sup>34)</sup>

이 문장은 태평양전쟁기에 국민의 불만을 억압하고 전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만든 유명한 전시표어이다. “사치는 적이다”, “석유 한 방울, 피 한 방울” 등과 함께 그 시대를 풍미했다. 1942년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가 여러 신문사를 통해 모집한 ‘국민결의 표어’에 선발된 10편의 입선작 중 하나로, 당시 도쿄에 살던 10세 소녀가 만들었다고 알려졌지만 전후에 그 소녀의 아버지가 만들었음이 밝혀졌다.

표어의 의미는 “나라가 신민에게 가난을 강요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는 떼쓰지 않겠습니다. 소비를 안 하고, 저축하여 물자를 공출하고, 불만을 말하지 않으며 전쟁에 협력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다. 흰 밥 한 가운데 빨간 우메보시(매실장아찌)를 심어놓고 ‘일장기 도시락’이라고 부르고, “파마넌트를 하지 맙시다”라는 일상을 억압하는 표어들이 넘쳐나던 시대였다.<sup>35)</sup> <갖고 싶어하지 않겠습니다 이길 때까지><sup>36)</sup>라는 제목의 전시 가요까지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던 덕분에 이 표어는 일본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남게 되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전후가 되자 이러한 전쟁표어들은, 이번에는 근거 없는 승리에 대한 신봉과 공권력에 의한 맹목적인 봉사의 강요를 비판하고 비웃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치는 적이다(贅澤は敵だ)”라는 표어에 素자 한글자만 더해 “사치는 멋지다(贅澤は素的だ)”로 바꾸는 식이었다.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까지 전쟁에 동원되어 절대적으로 물자가 부족했던 전시의 일상의 모습은 패전 후 폐허가 된 전후일본에서도 당분간 지속되었다. 전시 체제와 전시 표어는 패전 후에도 유효한 듯 했지만, 이내 암시장이 생기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의식이 생기게 된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커졌다. 정

34) 欲しかりません勝つまでは

35) 遠山茂樹・今井清一・藤原彰, 1959, 『昭和史』, 岩波書店.

36) 야마카미 다케오(山上武夫) 작사, 우미누마 미노루(海沼實) 작곡, 다마마루 미유키(玉丸美雪)·가요 나오토(加世田直人)·콜롬비아 유리카고회 노래. 콜롬비아레코드, 1942년 발매.

치·사회의 급변 속에 ‘운 좋게 기어 올라갈 사람은 기어 올라가고 있었으나 소설 속 다케지 일가는 여전히 빈곤했고, 참아야 했다.

한편 전쟁에서 전후로의 변화는 단지 경제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이 끝났어도 여전히 가난한 부모에게 욕을 퍼붓는 옆집 고등학생 아들이나 이국의 흑인병사에게 웃음을 파는 ‘팡팡 갈’들을 보며, ‘같은 일본인들을 소외시키고’ ‘자기만은 다른 인종인 양 (동족을) 멸시하는’ ‘비굴함과 노이로제와 같은 감각을’ ‘전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적든 공유하고 있다고 다케지는 생각한다.

시대는 바뀌었다. 국민들이 일심(一心)이 되어 욕망을 억누르던 전쟁의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난한 다케지가 애뜻한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봄은 그가 ‘외지’에서 청춘을 불사르던 전쟁기를 가리키게 된다.

누구나가 지금의 가난의 그늘에서 어느 정도 풍요로웠던 과거를 추측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좀 더 말하자면 일본의 번영 내지는 문화가 온전히 뿌리가 얽은 것들밖에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시비를 떠나 어찌 되었건 일본도 ‘영토’의 소유자였다. 다케지도 그리고 앞서 말한 S도 북변(北邊)의 어느 ‘영토’에서 일하던 국민 중 하나였다.(156쪽)

다케지와 기타무라는 일본제국이 전쟁을 수행하던 그 시기에 북변에서 민족협화, 왕도락토의 만주국 건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있었다. ‘대륙 일본인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낭만<sup>37)</sup>을 ‘만주낭만’ ‘대륙낭만’이라고 정의하며 일본인이 ‘만주풍토’에 흡수되어 타민족과 일체화할 것을 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렇게 ‘찬란했던’ ‘봄은 전후에는 그다지 아름다운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는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꿈꾸었던 ‘일본의 번영’도 ‘대륙낭만의 ‘문화’도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책임은 다케지와 S처럼 ‘외지’에 진출한 일본인들 개개인에게도 있다는 자각.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는 과정이 다케지와 기타무라 겐지로의 ‘전쟁이 끝나고 어

37) 北村謙次郎, 「探求と觀照」, 72쪽.

느새 20년'이 지난 세월이었던 것이다.

오다 다케오는 『북변모정기』의 추천사 「우연(偶言)」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이 책은 그에게 있어서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청춘사(靑春史)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글을 쓰는 그의 마음 어디인가에는 자신의 문학을 만주국의 운명과 함께 했다는 의식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원래 낭만파였던 그에게 어찌하면 이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 그가 설마 정말로 따르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반대로 바로 지금이 그가 다시 활기차게 재생활 때가 아닐런지, 가슴 가득 기대를 품어본다.<sup>38)</sup>

만주국의 붕괴, 즉 일본의 패전과 함께 죽어야 했던 기타무라의 문학은 그 재생을 위한 통과의례 『북변모정기』 이후로도 사실상 '활기차게' 살아나지는 못 했다. 다시 6년이 흐르고, 이제 예순이라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그는 다시 '만주국과 그 이후를 회상한다. '오소자쿠라(暹櫻)'는 변해가는 전후 일본을 살면서, 쓰라린 기억이지만 '비굴함도 없었고 '순수'하게 문학을 꿈꾸었던 자신의 청춘을 위해 읊은 송가(送歌)이다.

## 6. 결론을 대신한 결말

소설의 마지막에서 돈벌이를 위한 그림은 그리지 않으려 하던 다케지는 결국 생계를 위해 출판사의 정중한 부탁을 받아들인다. 제국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욕망을 감추지 않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되는 '전후'라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이 소설의 결말이다. 예순의 다케지가, 그리고 예순의 기타무라가 회상하는 전쟁의 시기 즉 그에게 있어서의 '만주국과의 결별은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다.

38) 小田巖夫, 앞의 글, 7쪽.

한링링(韓玲玲)이 “그(기타무라 : 인용자 주)에게 있어 문학이란 자기표현의 수단이었고, 자신의 인생체험의 존재증명이기도 했다”<sup>39)</sup>고 지적한 것처럼 기타무라는 문학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만주국’의 붕괴와 격변하는 전후 일본은 그에게 문학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남겨두지 않았다. ‘만주국은 그에게 찬란한 청춘이자 영원한 고향으로 남았고, 오다 다케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타무라의 문학은 ‘만주국과 함께 순사(殉死)했다. 외지 체험자들이 모두 고난의 귀환, 피해자로서의 귀환의 기억으로 외지에서 서의 ‘풍요로운’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은폐하고 단절을 시도할 때, 기타무라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 연속을 기록하고 또한 그와 함께 자신의 문학을 마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기타무라에게는 미발표 장편소설이 있었다. 한링링의 논문에 따르면 1960~70년대에 집필되었던 것으로 최근 사카이 노부오(坂井信夫)가 발행하고 있는 개인잡지 『색통신(索通信)』에 2013년 5월부터 연재되고 있다.<sup>40)</sup> 아직 확인을 하지 못 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낭만의 시절(浪漫の頃)』이라는 제목으로 『만주낭만』을 간행하던 ‘만주국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무라가 1982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소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가 문학으로 완전히 ‘재생’하지 못 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39) 韓玲玲, 앞의 논문, 99쪽.

40) 위의 논문, 108쪽, 주석 6번 참조.

## 참고문헌

- 박이진, 2013.12, 「귀환체험담의 '비극' 재현 담론 속 '반전평화주의'—1970년대 전  
환기의 귀환체험담 담론비평」, 『일본사상』 제25호
- 유수정, 2011.4, 「만주국초기, 일본어문학계의 <만주문학론>」,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1집
- 小田嶽夫, 1960, 「偶言」, 『北辺慕情記』, 大學書房
- 北村謙次郎, 1940.5, 「探求と觀照」, 『滿洲浪漫』第5輯
- \_\_\_\_\_, 1960, 「序に代えて」, 『北辺慕情記』, 大學書房
- \_\_\_\_\_, 1966, 『あららぎ物語—詩歌に生きた人びと』, 冬樹社
- \_\_\_\_\_, 1966.8, 「遅櫻」, 『政界往來』第32卷 第8号
- 崔俊鎬, 2012.5, 「日本人植民者の「引揚体験記」—「反復」と「継続」の流れ」, 『日語日文學』  
第54輯
- 遠山茂樹・今井清一・藤原彰, 1959, 『昭和史』, 岩波書店
- 成田龍一, 2003, 「「引揚げ」に関する序章」, 『思想』第11号
- 朴裕河, 2009.11, 「引揚げ文學論序説—戦後文學のわすれもの」, 『日本學報』第81号
- 韓玲玲, 2014, 「雑誌『滿洲浪漫』における北村謙次郎の文學理念」, 『總研文化科學研究』第10号
- 引揚者援護廳長官官房總務課記録係編集, 1950, 「引揚援護の記録」, 引用引揚援護廳
- 黃益九, 2014.2, 「「引揚げ」言説とく記憶」の版図—岩森延男「わかれ道」が發信する美談と「故  
郷」」, 『日語日文學』第61輯
- 本田靖春, 1979, 「日本の“カミュ”たち—「引揚げ体験」から作家たちは生まれた」, 『諸君』第11卷  
第7号
- 保田與重郎, 1938.11, 「大陸と文學」, 『新潮』第409号
- 若槻泰雄, 1991, 「表一 海外在住者數」, 『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
- 芥川賞のすべてのようなもの  
<http://homepage1.nifty.com/naokiaward/akutagawa/pkogun/pkogun12KK.htm>

■ 日文概要 ■

## 北村謙次郎の戦後「満洲」

柳水晶

本論文は、北村謙次郎の戦後の文筆活動を發掘・整理し、彼が「直視」した「満洲」、「満洲國」とは彼において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を考察する試みである。

日本浪曼派出身の北村謙次郎は、1937年に満洲國の首都、新京に渡り、『満洲浪曼』を創刊した満洲國唯一の專業作家である。1945年の敗戦の後、1946年夏から本格的に「外地」からの引揚げが始まった。この過程で体験した引揚げの記憶は、敗戦直後の1940年代後半から体験者の語りによって生産され、以後、小説・映畫・漫畫・ドラマなどジャンルを変えながら現在まで再生産されている。1948年、佐世保を経て東京に引揚げた北村謙次郎は、誰にも劣らぬ引揚げを経験したにも関わらず、彼の戦後テキストには引揚げの記憶はほとんど語られていない。

戦後の北村謙次郎の文筆活動は、大きく4つに分けられる。短歌歌壇について記録する活動と子供向けの再話、エッセイや雑誌の記事、して小説創作がそれでそある。生活のための再話といつかの雑誌の記事やエッセイを除いては、引揚げ後の10余年間、北村はほとんど筆を折っていた。長い休止期を経て、彼は再び文學界に戻ってきたのは戦前の浪曼派でもなく、趣味で楽しんでいた短歌でもない、まさに「満洲國」で活躍していた日本の文學者たちの話を綴った回顧録『北辺慕情記』であった。その序文には、15年という歳月と、自分が老年に入っているという自覺が10年間の沈黙を破り、「満洲」を召喚したと述べている。北村にとって「満洲」は苦い帝國の記憶として必ず記録しておくべき課題であったと同時に、旺盛に活動していた華麗な青春でもあったのである。

1966年、北村が発表した戦後唯一の短編小説「遅櫻」には、「満洲」から引揚げた西洋畫家が主人公として登場する。小説は、彼の引揚げ後の貧しい生活、青春と老いに對する感慨、戦中から戦後への変化などが主人公の目を通して、描かれている。小説の最後には、金のための繪は描くまいとしていた主人公が、生計のために、出版社の丁寧な依頼を引き受けるという場面で終っている。て異國は滅び、人々はもう欲望を隠さなくなり、金さえあれば何でもできる「戦後」という新しい変化を引き受けたその瞬間、小説は終るのである。

「満洲國」が崩壊し、日本の敗戦とともに死した北村の文學は、その再生のための通過儀礼であったはずの「北辺募情記」以降にも、再生することはなかった。「遅櫻」は変わっていく戦後日本社會を生き、60歳を迎えた作家が、帝國の歴史という苦い記憶ではあるが、屈託のない「純粹」な文學を夢見た自分の青春のために歌った送歌であろう。「外地」を体験した者たちが皆、苦難の体験、被害者としての引揚げの記憶をもって、「外地」での「豊かな」加害者としての記憶を覆い隠そうと斷絶をしたときに、北村謙次郎は、その記憶を引き出して連續を記録し、また、それと同時に彼の文學も終わらせたのである。